

# 6·25전쟁기 터키군 참전에 관한 연구

## - 참전 동기와 군우리 전투를 중심으로 -

김진우\*

1. 머리말
2. 터키의 6·25전쟁 참전 동기
3. 군우리 전투에서의 터키군 활약
4. 맺음말

### 1. 머리말

많은 사상자와 함께 한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악몽을 야기한 6·25전쟁이 벌써 종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6·25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미·소 강대국이 세계질서의 패권을 놓고 경쟁한 냉전의 시작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쟁이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한만을 행위자로 하는 내전으로 볼 수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진행된 국제전으로 보아야 한다.<sup>1)</sup>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의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1) 다양한 6·25전쟁에 대한 연구 중 전쟁의 성격을 '국제전'으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윌리엄 스톡·김형인 외 공역, 『한국전쟁의 국제사(The Korean War-An International History)』, 푸른역사, 2001. 참조.

결의를 통해 전쟁기간 중 대한민국을 지원한 나라가 63개국이었다는 사실은 6·25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병력을 파견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16개국 중 관심을 사로잡는 한 나라는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로 잘 알려진 터키이다. 터키군은 한국군과 UN군이 38선을 넘어 한만 국경을 향해 북진을 하고 있을 때인 1950년 10월 17일, 병력을 실은 수송선이 부산에 도착하면서 6·25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파견된 터키군은 3개 보병대대, 1개 105mm 곡사포 대대, 그리고 지원부대로 구성된 총 5,455명의 여단 규모였으며, 여단급 규모 이상으로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UN군의 주축이었던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캐나다 그리고 터키가 유일하였다.<sup>3)</sup> 영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병력 파견은 두 나라와 미국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과 1·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작전 경험을 통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방국가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뼈아픈 패배의 기억으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중립주의(Neutralism)를 표방한 터키의 6·25전쟁 참전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더욱이, 741명의 전사자와 2,068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총 3,216명에 이르는 터키군 피해<sup>4)</sup>가 미국, 영국의 피해에 이어 참전한 나라 중 3번째였던 사실과 최초로 참전한 터키군 1여단의 경우 총 병력인 5,455명의

2) 2012년 5월 10일 국방부에서 주관한 ‘6·25전쟁 지원국 현황 연구’ 포럼에서 기존의 16개 병력 지원국(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공, 룩셈부르크), 5개 의료지원국(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 20개 물자 및 재정지원국(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레바논,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아이티, 에콰도르, 우르과이, 엘살바도르, 칠레, 쿠바,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바티칸(교황청))에 추가하여 19개국(과테말라, 도미니카, 독일(서독), 모나코, 버마(미얀마), 베트남,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시리아, 자메이카, 헝가리, 캄보디아, 대만)이 6·25전쟁 기간 중 물자 및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지원을 준비하는 도중 정전되어 전후 복구 지원으로 전환한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 등 3개국도 지원국 범주(지원 의사 표명국)에 포함되어 총 63개국이 6·25전쟁 지원국으로 공표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282~285쪽.

3) 국가보훈처,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2007, 13쪽.

4)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283쪽.

36%에 해당하는 1,953명이 전·사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터키의 6·25 참전을 설명하기 위해 ‘UN의 요청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대한 도움’이라는 단순한 설명 이상의 보다 분석적 접근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sup>5)</sup>

터키 참전의 궁극증과 함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6·25전쟁에서의 터키군 활약이다. 터키군은 중공군 2차 공세시 군우리 전투<sup>6)</sup>(1950. 11.26~12.1/1여단)를 수행하였으며, 중공군 3차 공세를 저지한 후 UN군이 공세로 전환했을 때에는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의 일환으로 김량장리 전투(1951.1.25~27/1여단)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장승천 전투(1951.4.22~23/1여단), 네바다 전초전(1953.5.28~29/3여단) 등 터키군은 3년 1개월간의 6·25전쟁의 다양한 국면에서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전쟁이 종료된 후 1971년까지 한국에 주둔하였다.<sup>7)</sup>

5) 터키의 6·25전쟁 참전 동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참전 당시 터키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연구 중 Myongsob Kim, “The Politics of Troop-Dispatch: Why Did the Europeans Send Their Boys to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XVI, No.2(Fall 2004), pp.227~251에서는 유럽국가들의 6·25전쟁 참전이유를 설명하면서 터키의 경우 ① UN 결의안에 따른 행동(In Pursuance of UN Resolution), ② 서구와의 유대관계 선호(In Favor of Linking up with the West)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재만, 「한국동란발발과 토이기의 외교정책」, 『국제정치논총』 제15집, 한국국제정치학회, 1975.12., 119~131쪽에서는 여러 동기 중 ‘국외에서의 평화 추구’를 터키의 6·25전쟁 참전의 첫 번째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

6) UN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시 터키군 1여단이 수행한 와원리 전투, 신립리 전투, 봉명리 전투, 평양으로의 철수 등 여러 전투들을 한국에서는 ‘와원전투’, 터키에서는 ‘Kunuri Muharebesi(군우리 전투)’, 미국에서는 ‘The Battle of the Chongchon(청천강 전투)’의 하위에 두어 기술하고 있다.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일 기간 동안 터키군 1여단이 수행한 모든 전투를 칭하는 용어로 ‘군우리 전투’를 사용하겠다.

7) 터키군은 휴전 이후 의정부 부근의 용현리에 주둔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하였으며(터키군 3·4여단), 주력은 1954년 여름 철수하고 중대 규모가 남아 정전업무와 전후 복구임무를 수행하였다. 1966년에는 상징적인 1개 분대의 의장대만을 남기고 중대병력이 귀국하였으며, 1971년 6월 27일을 기해 한국에 주둔한 전 병력이 최종적으로 철수하게 된다. 국가보훈처, 앞의 책, 97쪽.;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epublic of Korea,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Seoul, 1997), pp.401~404.

6·25전쟁의 주요 국면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던 대한민국을 구해낸 터키군, 특히 6·25전쟁 참전 후 첫 전투임무인 군우리 전투에서의 터키군 1여단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활약에 대한 현재의 기억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터키군 1여단에 대한 평가 및 기억을 대대급으로 참전하여 미 23연대와 함께 지평리 전투(1951.2.13~15)를 수행했던 몽클라르(Ralph Monclar) 중령 지휘하의 프랑수아군, 그리고 설마리 전투(1951.4.22~28)에서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전분투하여 전투를 수행한 글로스터(Gloster) 대대의 임무수행으로 대표되는 영국군에 대한 평가 및 기억과 비교한다면 ‘평가절하’ 또는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sup>8)</sup>

단순한 의료지원과 물자지원에만 그치지 않은, 또한 형식적 숫자의 병력만을 파병하지 않은 터키군의 활약이 우리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 깊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6·25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본인의 회고록에서 ‘용맹한 터키군’이라고 묘사<sup>9)</sup>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투수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터키군이 주로 독립적 임무수행보다는 미군 군단 또는 사단에 배속되어 전투를 수행한 점, 6·25전쟁에서 UN군의 활동과 관련된 사료에서 차지하는 미국중심 사료의 절대적 우위성, 그리고 터키에서 발행된 터키군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성 등을 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터키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2차 사료와 함께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행된 『6·25戰爭史』,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미 육군에서 발행된 『U.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그리고 터키 총사령부에서 발행된 『Kore'de Türk Muharebeleri(한국에서의 터키군 전투들)』 등의 공식

8) 지평리 전투와 설마리 전투에 대해서는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 전투』, 황금알, 2010, 189~197쪽, 210~212쪽 참고.

9) 백선엽, 『군과 나』, 시대정신, 2009, 187쪽.

자료에 근거하여, ① 터키의 참전 동기 분석, ② 첫 전투임무였던 군우리 전투에서의 터키군 1여단 활약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6·25전쟁기 터키군 참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1차 사료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터키 사료에 근거하여 6·25전쟁 당시 터키군의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활약을 재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방국가 이외의 참전국에 대한 연구활동의 확대 측면에서 충분히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터키의 참전 동기에 대한 분석은 여러 나라들이 평화유지, 해적소탕, 테러활동 근절 등의 목적을 위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경쟁적으로 해외파병을 결정하는 숨겨진 동기에 대한 답의 일부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가 더 크다고 하겠다.

## 2. 터키의 6·25전쟁 참전 동기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국제사회가 냉전의 소용돌이로 돌입하고 있을 때인 1950년에 터키는 왜 8,000km나 떨어진 먼 이국땅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하였던 것일까? 터키인의 조상인 돌궐, 투르크-위구르족이 고구려, 고려시대의 우리 조상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시대 때 양국 관계는 ‘無’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었으며, 20세기 초에는 오히려 우리민족의 원흉인 일본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다.<sup>10)</sup> 터키에서 한국인들을 “칸카르데쉬(Kankardes, ‘피를 나누는 형제’라는 뜻의 터키어)”라고 부르며, 터키인들 중 일부가 “코렐리(Koreli, ‘한국인’이라는 뜻의 터키어)”라는 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용어가 터키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터키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부터이다. 때문에 단순히 터키의 파병동기를

10) 국가보훈처, 앞의 책, 21~34쪽.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에서 찾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UN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 요청에의 부응’이라는 것으로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터키군의 참전 규모와 많은 희생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 터키군의 파병동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 우선적으로 파병결정 당시 터키의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6·25전쟁 파병 결정까지 터키의 국내·외적 상황

1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함께 동맹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패배한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은 전쟁 종료 후 1920년 8월 10일 세브르 조약(Treaty of Sevres, 1920)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영토의 대부분이 연합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sup>11)</sup>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sup>12)</sup> 지휘하의 신흥세력은 독립전쟁을 통해 연합국을 물리치고 현재의 터키 영토를 회복하였으며, 1923년 7월 24일 로잔조약(Treaty of Lausanne)을 통해 신생 터키공화국이 아나톨리아(Anatolia)에서 오스만 제국에 이은 주권국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터키는 아타튀르크의 ‘국내의 평화, 세계의 평화(Yurtta Sulh, Cihanda Sulh)’ 구호를 바탕으로 균형적 외교를 통해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신생공화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개혁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터키의 ‘불(不)개입’, ‘비(非)교전’의 입장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연합군과 추축국의 구애와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sup>13)</sup>

11) 1차 세계대전 후 터키에 주둔한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이다.

12) 1차 세계대전시 갈리폴리 전투(the Battle of Gallipoli)에서 승리하여 국민적 영웅이 되었으며, 독립전쟁(1919~1923)을 승리로 이끌면서 터키공화국 초대대통령이 된다. ‘ATATÜRK’의 의미는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13) Kibaroglu, Mustafa and Kibaroglu, Aysegül, *Global Security Watch: Turkey*(Londo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9), pp.18~20, 37~41.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인 1945년 초, 터키의 ‘중립주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변화의 부분적 이유는 국내적으로 국가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또한 1944년 여름에 이미 독일의 패배가 확실시됨으로써 전후처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전국이 된 소련으로부터의 증대된 위협이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기존 터키 외교활동의 주 무대였던 중앙아시아(Central Asia)와 발칸(the Balkans)지역은 소련의 세력권으로 포함되게 되었으며, 특히 소련은 얄타회담(Yalta Conference, 1945)에서 전·평시 보스포러스 해협(Bosporus Straits)과 다르다넬스(Dardanelles)에서의 터키의 주권을 보장한 몽트뢰조약(Montreux Convention, 1936)의 수정을 통해 지중해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내비추었다.<sup>14)</sup> 더욱이 1945년 3월 19일에는 터키와 소련 양국에 의해 1925년도에 체결된 우호 및 불가침 조약(Treaty of Friendship and Non-Aggression, 1925)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터키 동부 국경의 재설정(즉, Kars와 Ardahan 지역의 소련으로의 양보)과 보스포러스 해협에 소련 군사기지 설치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sup>15)</sup>

지중해 및 터키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은 소련과의 외교문제는 터키 혼자만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터키로의 위협 증대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놓고 이루어지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소련이 미리 선정한 ‘소련화(Sovietization) 구상’에 따라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터키는 더 이상 ‘중립주의’ 및 ‘고립주의’를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서방국가, 특히 공산주의의 유럽

14) Kibaroglu, Mustafa and Kibaroglu, Aysegül, op. cit., p.39.

15) Oran, Baskin, *Türk Dış Politikası Cilt I: 1919-1980*(터키 외교정책\_1권: 1991-1980)(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1), p.473.

으로의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의 이웃이 된 또 다른 초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터-소 외교갈등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인 소련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sup>16)</sup> 하지만 소련의 터키, 더 나아가 지중해, 중동으로의 팽창의도가 분명해지자 더 이상 그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 프랑스와 맺은 3자 동맹(Trilateral Declaration of Guarantees, 1939)이 유효함을 내세워 만약 터키가 공격당할 경우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였으며, 미국은 1946년 4월 5일 미주리호(USS Missouri)를 이스탄불에 파견함으로써 터키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소련에게 전달하였다.<sup>17)</sup>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소련의 터키에 대한 위협이 일시적으로 경감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련은 보스포러스 해협의 지위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시키기 위해 터키에게 더욱 많은 압력을 가하였다. 가중되는 소련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1947년 3월 12일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발표하면서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터키와 그리스에게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하기로 약속했다. 냉전기간 중 소련의 팽창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고안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첫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터키는 군을 현대화시킬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냉전기간 중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갖춘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터키에 있어서 트루먼 독트린의 시행이 갖는 의미는 더욱 컸다.<sup>18)</sup>

16) *ibid.*, p.503.

17) *ibid.*, p.475.

18) *ibid.*, pp.528~537.

## 2) 터키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미국의 지원대상국이 된 터키였지만 가중되는 소련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안보보장이 절실했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유럽에서는 소련의 공산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기구의 창설이 논의되던 중, 1949년 4월 4일 워싱턴조약(Washington Treaty)의 서명으로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동일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설치되었다.<sup>19)</sup> 여러 가지 이유<sup>20)</sup>,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을 통해 국경을 접하고 있던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극복하고자 했던 터키는 NATO의 창설이 논의되던 초기단계에서부터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초대되지 않았다. 터키가 제외된 이유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터키의 NATO 가입이 오히려 소련을 자극하여 유럽에서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회원국의 증가로 인해 NATO로부터의 군사원조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sup>21)</sup> 더욱이, NATO의 창설을 주도한 영국은 중동지역에서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에즈운하(Suez Canal)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보기구를 만들기 희망하였고, 터키가 NATO가 아닌

19) 워싱턴 조약에 서명한 최초의 NATO회원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랜드 등의 12개국이며, NATO의 설치 목적은 ① 소련 팽창주의 저지(deterring Soviet expansionism), ② 유럽 내 군국주의의 재발 방지(forbidding the revival of nationalist militarism in Europe), ③ 유럽정치통합의 강화(encouraging European political integration)이다.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 short history of NATO” 참조. <http://www.nato.int/history/nato-history.html>(검색: 2012.10.28)

20) 터키가 NATO 가입을 희망한 이유에는 ① 1945년부터 지속된 소련의 보스포러스 해협 및 터키 동부지역 국도 병합 야욕의 충격 해소, ② 서구 지향적 외교정책의 추구, ③ NATO에서 제외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감소 우려, ④ NATO 가입과 관련된 긍정적 여론의 형성 등이 있다. Oran, Baskın, op. cit., pp.543~544 참조.

21) Yüceer, Samie, “Tarihsel Perspektif İçinde Türkiye’nin NATO’ya Girişi ve Meclisteki Yankıları (역사학 관점으로 바라본 터키의 NATO 가입과 국회의 반응)”, *Atatürkçü Bakış*, C.I, Sayı 1: I(2002), pp.71~89.

이 기구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sup>22)</sup>

영국이 제안한 중동지역 별도의 안보기구 창설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소련의 위협을 막을 수 없었기에 전혀 터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터키는 1949년 2월,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사닥(Necmettin Sadak)이 영국 외무부장관 베빈(Earnest Bevin)에게 처음으로 터키의 NATO 가입 희망을 표방한 이래 지속적으로 NATO의 정식 회원국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NATO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10일째 되던 날, 사닥 장관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여 터키의 NATO 가입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950년 5월 11일에는 공식적으로 처음 NATO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원국들 중 이탈리아만이 동의한 채 원하는 결과를 터키에게 가져다주지 않았다. 1950년 5월 13일 터키에서 실시된 선거결과 새로이 다수당이 된 멘데레스(Adnan Menderes)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Demokrat Parti, DP)과 새롭게 선출된 제랄 바야르(Celal Bayar) 대통령<sup>23)</sup>은 이전 정부의 외교노선에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최우선 당면 과제를 터키의 NATO 가입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터키는 1951년 9월 NATO로부터 초대되어 1952년 2월 그리스와 함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sup>24)</sup>

가입의사를 처음 내비친 3년이 지나서야 터키는 NATO의 정식회원국이 되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우선 이익인 안보를 동맹국들과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터키의 NATO 가입은 많은 터키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회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은 과정’의 산물이었다.<sup>25)</sup> 대서양에 인접하지도 않은, 지중해 연안국가의 하나였던 터키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가입을 반대하던 상황을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상황으로 180도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NATO회원

22) *ibid.*, p.79.

23)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923-38), 이스멧 이노뉴(İsmet İNÖNÜ, 1938-50)에 이은 터키의 3번째 대통령.

24) *ibid.*, p.82.

25) Kibaroglu, Mustafa and Kibaroglu, Aysegül, *op. cit.*, p.47.

국들, 특히 소련과의 경쟁관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미국이 터키의 군사적 가치를 재평가한 것에서 크게 연유하였으며, 터키에게 있어서 재평가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무대는 아나톨리아 반도도 지중해 지역도 아닌, 아시아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였다.

### 3) 터키의 6·25전쟁 참전 동기 : NATO 가입을 위한 초석 마련

결론부터 말하자면 터키의 6·25전쟁 참전이 터키가 NATO회원국이 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은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닌 터키의 ‘계산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5일 후인 1950년 6월 30일, 터키 의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진행상태가 소개되었으며, 터키 의회는 논의를 거쳐 한국으로의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UN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답할 것을 공식화하였다.<sup>26)</sup> 터키정부는 1950년 7월 18일, 이스탄불에서 비밀리에 소집한 내각회의를 통해 한국으로의 병력 파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7월 25일, 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4,500명 규모의 여단급 부대를 파병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터키정부의 전투부대 파병 결정은 UN의 요청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응답한 것으로서 터키 외무장관 코프룰류(Mehmet Fuat Köprülü)는 터키의 신속한 결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sup>27)</sup> 야당인 공화민중당(Cumhuriyet Halk Partisi, CHP)과 국민당(Millet Partisi, MP)은 한국으로의 파병 결정과 관련하여 멘데레스 정부가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과 파병규모가 큰 것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26) Bulut, Sedef, “Sovyet Tehdidine Karşı Güvenlik Arayışları : I. ve II. Menderes Hükümetlerinin(1950-1954) NATO Üyeliği ve Balkan Politikası (소련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 추구: 제1, 2차 멘데레스 정부(1950~1954)의 NATO 가입 및 발간정책)”, *Ankara Üniversitesi Türk İnkilap Tarihi Enstitüsü Atatürk Yolu Dergisi*, S. 41(2008), pp.234~235.

27) Bağcı, Hüseyin, *Türk Dış Politikasında 50'li Yıllar(50년대 터키 외교정책)* (Ankara: Metu Press, 2001), p.20.

본질적으로는 파병에 동의하였으며, 국민여론 또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였다.<sup>28)</sup> 멘데레스 총리는 의회동의를 생략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터키의 안보가 장기화된 위협을 받아들이고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달려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미국이 홀로 자유세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터키의 NATO회원국 지위 확보는 우리가 미국의 행보에 발맞추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에 달려 있었다. 터키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중요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라고 밝히며 터키의 6·25전쟁 참전 결정이 NATO 가입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sup>29)</sup> 또한 6·25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의회질의시 멘데레스 총리는 “한국으로의 파병은 터키가 NATO에 가입하는데 있어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NATO 가입이 행정부 결정에 있어서의 주 고려사항이었음을 피력하였다.<sup>30)</sup>

봉쇄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가 점차 중요해진 것과 미 전략공군본부에 의해 계획된 ‘소련 포위체제’의 실행에 있어서 터키의 항공기지가 필수적이었던 것 등이 터키의 NATO 가입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sup>31)</sup>, 터키의 6·25전쟁 참전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한국으로의 터키군 파병은 서방국가, 특히 미국에게 터키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터키가 서구중심의 안보체제, 즉 NATO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sup>32)</sup> 실제로, 터키의 6·25전쟁 참전 이후 미국은 터키의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터키의 가입을 반대하던 영국, 프랑스를

28) Bulut, Sedef, op. cit., p.236.

29) Bağcı, Hüseyin, op. cit., p.26.

30) Türk Büyük Millet Meclisi(터키 국회), *Tutanak Dergisi, Cilt. II (의회 녹취록 II)*(Ankara: TBMM, 1951), p.73.

31) Bostanoğlu, Burcu, *Türkiye-ABD İlişkilerinin Politikası (터-미 관계속의 정책)* (Ankara: İmge, 1999), p.390.

32) Türkmen, Füsün, “Turkey and the Korean War”, *Turkish Studies*, Vol.2 (2002).

포함한 유럽국가들이 기존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sup>33)</sup> 특히, 주터키 미국대사였던 맥기(George McGhee)는 터키의 6·25 전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터키가 NATO의 정회원국이 되는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으며, 터키의 NATO 가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sup>34)</sup> 이와 같이, 1923년 터키공화국 수립 후 시행된 최초의 해외파병은 냉전의 초기단계에서 1878년부터 지속된 터키의 외교·군사적 고립에 종점을 찍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미국주도하의 서방동맹체제로의 포함’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터키가 6·25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주된 동기가 NATO 가입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터키의 파병결정 과정에서 현실주의(Realism)에 입각한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한 국가가 무정부(Anarchy)의 국제체계에서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힘’의 추구가 외교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sup>35)</sup> 외교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생존’과 ‘국가안보’이며, 이를 위한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동맹(Alliance) 형성’과 ‘물질적 능력(Material Capabilities)의 강화’이다.<sup>36)</sup> 터키가 트루먼 독트린에 따른 지원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력(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33) Yüceer, Samie, op. cit., pp.81~82.

34) Bağcı, Hüseyin, op. cit., pp.30~35.

35) 모겐소(Hans J. Morgenthau)로 대표되는 전통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는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이유를 ‘인간의 힘에 대한 욕망(Human Lust for Power)’에서 찾고 있으며, 월츠(Kenneth N. Waltz)로 대표되는 구조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는 ‘국제사회의 구조(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가 국가가 힘을 추구하도록 강제한다고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Mearsheimer, John J., “Structural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Discipline and Diversity*, eds. Dunne, Tim and Kurki, Milja and Smith, Steve(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72 참조.

36)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Random House, 1979), pp.103~104.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소련의 위협에 하루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NATO를 통한 서방세계, 특히 미국과의 동맹이 절실하였다. NATO라는 동맹의 추구가 매우 필요했던 터키가 그럼 왜 6·25전쟁을 선택하였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국가가 동맹을 형성함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두 가지 걱정, 즉 ‘포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로부터의 ‘동맹의 안보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로 설명할 수 있다. 많은 국가, 특히 약소국과 같이 동맹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안보보장국인 강대국이 필요한 시기에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포기’에 대한 걱정이 ‘연루’, 즉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강대국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 또는 전쟁으로의 동참에 대한 걱정을 압도할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하게 된다.<sup>37)</sup> 1950년 6·25전쟁 파병 당시 터키의 상황은 오랜 전쟁을 마무리하고 막 신생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기에 ‘약소국’이라는 묘사가 더욱 적합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NATO회원국이 되고자 했던 의도에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안보보장을 받고자 하였다. 냉전기 미-소 대결의 첫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터키와의 관련성은 부족했지만, NATO의 핵심 축이자 터키와의 동맹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외교력을 지닌 미국에게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전쟁이었다. 아나톨리아 반도와 지중해로의 소련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터키는 미국이 ‘포기’라는 선택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었다. 때문에 ‘연루’라는 축으로 기울어져 멀리 한반도에서 미국 지휘하의 UN군에 의해 수행되어진 6·25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그 결과 정식 NATO회원국이 되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38)</sup>

37) Bennett, Andrew and Leggold, Joseph and Unger, Danny, “Burden-sharing in the Persian Gulf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8(1) (1994), p.44.

38) 터키의 6·25전쟁 참전과 같이 ‘동맹의 안보딜레마’에서 연유한 동기에 의해 해외파병을 한 유사한 사례에는 케리비안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아이티 파병(MNF in Haiti), UAE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터키의 6·25전쟁 참여의 결정적 동기는 자국의 안보보장을 先고려한 ‘NATO 가입을 위한 초석 마련’이었지 단순히 ‘UN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수행’,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도움’ 등의 이상적 또는 배애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왜 터키가 미국, 영국에 이어 많은 병력을 파견했는지 그리고 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준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터키의 참전동기가 자국의 국가이익인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에서 연유했다는 사실이 터키군의 6·25전쟁에서의 활약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단 터키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 특히 생존과 연결되는 안보를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룰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에서의 활약에 대한 재평가는 비록 터키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실제 전투현장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용맹하게 싸웠으며 또한 UN군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 3. 군우리 전투에서의 터키군 활약

군우리 전투는 한국으로 파병된 터키군 1여단의 첫 전투임무였다. 터키군 1여단은 한국에 도착한 후 대구의 UN군 수용대(UN Reception Center)에서 물자 보충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미 9군단에 배속되어 후방 보급로 경계임무를 담당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전선진출 명령에 따라 장단지역으로 이동하여 11월 20일까지 주보급로 경계임무와

---

와 쿠웨이트의 소말리아 파병(UNITAF in Somali), 그루지아의 이라크 파병(MNF in Iraq), 동유럽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이 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Challenges for the New Peacekeepers*(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7 참조.

유격대 소탕임무를 수행하였다.<sup>39)</sup> 이후 UN군 크리스마스 공세에 따른 미 9군단의 북상으로 11월 22일부터 군우리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중공군 38군 예하 112, 113, 114사단에 맞서 와원리(11월 26~28일 저녁), 신립리(11월 28일 저녁~29일 오후), 봉명리(11월 29일 저녁~30일 새벽) 등의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터키에서는 군우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1월 29일 수도 앙카라(Ankara)에 있는 한국공원에서 터키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많은 터키인들은 군우리 전투를 터키군의 활약으로 미 8군 전체가 중공군에 의해 포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승리(Zafer)’, ‘영웅적 행위(Kahramanlık)’ 등의 단어로 묘사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전투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터키인들의 기억과는 달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식 서적과 미군들의 많은 참전수기에는 같은 전투가 중공군의 ‘태형(笞刑, Gauntlet)’으로 인해 미 2사단이 전멸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던 치욕적 전투로 묘사되고 있다. 군우리 전투의 결과 UN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장 피해가 많았던 미 2사단은 총 4,037명의 인명손실을 입었으며, 개인화기의 45%, 차량의 30%, 기타장비 및 화기의 50%를 잃었다.<sup>40)</sup> 터키군 1여단에서도 군우리 전투 결과 218명의 사망자, 94명의 실종자, 45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중화기 및 차량의 70%를 잃었다.<sup>41)</sup> 하지만 단순히 인적·물적 피해가 많았다고 해서 군우리 전투를 실패로 결론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일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다 전사한 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퇴색되고 말 것이다. 군우리 전투에 대한 터키군의 활약이 보다 정확하게 ‘상황’과 ‘임무수행 과정’에 따라 재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39) 국가보훈처, 앞의 책, 67~69쪽.

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2010, 392쪽.

41) Genelkurmay ATASE, *Kore’de Türk Muharebeleri(한국에서의 터키군 전투들)*(Ankara: Genelkurmay Basımevi, 2012), p.71.

본 장에서는 한·터·미의 공식자료와 함께 터키에서 발간된 참전수기를 비교·분석하면서 터키군 1여단의 활약을 재평가하겠다.

## 1) 군우리 전투와 터키군 1여단

중공군의 1차 공세(1951.10.25~11.5)에 의해 공격기세가 둔화된 UN군은 재공격을 실시하여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전쟁을 종료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터키군 1여단과 미 2사단, 미 25사단이 소속된 미 9군단은 미 8군의 중앙에서 공격을 담당하게 되었다.<sup>42)</sup> 미 9군단에 작전통제되어 예비임무를 수행하게 된 터키군 1여단은 11월 22일부터 대대별 이동을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6일에 전 여단이 군우리에 집결지를 편성하였으며, 군단으로부터 부여될 차후임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sup>43)</sup>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미 8군의 우익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군 2군단 지역이 돌파된 11월 26일, 터키군 1여단장이었던 야즈즈(Tahsin Yazıcı) 준장은 미 9군단사령부에 도착하여 16:00에 미 9군단장 콜터(John B. Coulter)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두명령을 하달받는다.

“현재 한국군 2군단이 후퇴 중에 있다. 덕천은 적에 의해 포위된 상태이며, 이는 군단의 우익을 위협하고 있다. 군사령관은 터키 여단이 이 길을 따라 이동하여 덕천을 점령할 것과 그곳에서 미 2사단과 접촉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 1기병사단은 순천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할 것이며, 기병사단이 내일 아침까지 이동을 완료할 것이라 생각한다. 터키 포병대대는 군우리에서 합류할 것이다. 빨리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포위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도시(덕천)를 탈환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sup>44)</sup>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68쪽.

43) 1950년 11월 14일 각 군단에 하달된 미 8군의 작전계획에 따르면, ‘미 제1기병사단과 터키 여단은 예비로 후방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황에 따라 전선부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책, 443쪽.

44) Genelkurmay ATASE, op. cit., p.59.

명령을 접수한 야즈즈 준장은 콜터 소장에게 건의하여 신속한 이동을 위한 차량 50대와 공격작전을 위한 1개 전차소대를 지원받았으며, 여단이 위치하고 있던 군우리에 복귀하기 전 유선으로 예하부대들에게 덕천으로의 이동을 위한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sup>45)</sup> 26일 18:00에 정찰대를 선두로 1대대-2대대-3대대-포병대대-전차소대 순으로 중간목적지인 와원리(군우리 동쪽 25km)를 향해 야간행군을 시작한 터키군 1여단은 26일 밤을 와원리 남서쪽 1km 지점에 위치한 성불골에서 보내게 되었다. 11월 27일 새벽, 터키군 1여단은 정찰소대와 전차소대를 선두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며, 후미부대인 3대대와 포병부대가 여일령 고개를 넘고 있을 때인 14:30경 여단에 파견되어 있던 미 통신장교 로렌조(Lorenzo) 대위의 통신차량을 통해 군단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하달받게 된다.

“덕천으로의 이동을 중지하라. 어제 트럭에서 하차한 지점의 1,000야드 동쪽(여일령 일대 용덕리)에 위치하여 접근로를 차단하라. 장상리(덕천 북서쪽)에 연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였다.”<sup>46)</sup>

야즈즈 준장은 군단의 새로운 명령에 입각하여 상황을 평가한 후 부대를 철수시켜 와원리 후방에 위치한 백담산과 547고지 일대에서 저지진지를 구축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려 하였다. 선두로 철수한 2대대와 3대대가 547고지-성불골-446고지를 연해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인 11월 28일 02:00경, 1대대를 후속하여 마지막으로 철수하던 정찰대는 중공군의 기습사격에 의해 유선소대장과 공병소대장이 사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로렌조 대위는 터키군 1여단과 미 9군단의 유일한 연락대책이었던 통신차량과 함께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sup>47)</sup>

탈출한 정찰소대장 도안(Kamil Doğan) 중위의 보고를 통해 03:30경 중공군의 공격상황을 파악한 야즈즈 준장은 와원리의 부대들에게 전투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청천강 전투』, 1985, 243쪽.

46) Genelkurmay ATASE, op. cit.,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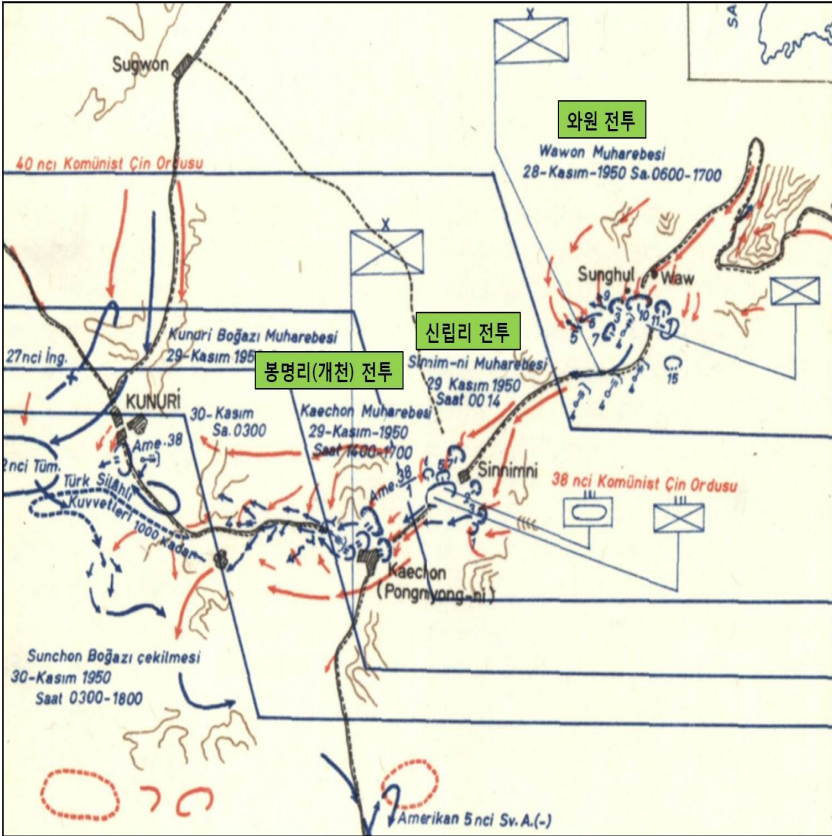
47) ibid., p.61.

준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정찰대 구출을 위해 출동했던 11중대를 동측 방 446고지에, 3대대의 예비중대인 9중대를 도로중앙 성불골의 서측능선에 보강하여 전방진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관총 반으로 증강된 공병소대를 백담산 부근의 799고지로 추진 배치하여 남동쪽으로의 적 침투에 대비하였다. 11월 28일 동틀 무렵, 대규모 중공군이 도로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한 10중대 지역으로 밀려들어 외즈벡(Arif Özbek) 하사가 지휘하던 경계분대는 분전에도 불구하고 분대원의 대부분이 전사하였으며, 06:00경에는 중앙 10중대 진지를 포함한 서측 2대대 지역과 동측 11중대 진지로도 중공군의 포위공격이 시작되었다. 2시간 동안의 치열한 교전간 터키군은 총검술과 수류탄 투척으로 중공군의 연속적 공격을 막아냈으며, 특히 보병의 일제사격과 포병대대의 최후방어사격을 통해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힘으로써 중공군의 최초공격은 저지되었다.

전열을 가담은 중공군은 14:00에 재공격을 실시하여, 3중대가 새로이 증강된 여단의 서측방 2대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터키군은 이번에도 고군분투하였으나 상급부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대대 지역의 547고지를 상실하였으며, 2대대는 결국 500m 후방으로 물러나 저지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방에서 부대를 지휘하던 부여단장 도라(Celal Dora) 대령은 후퇴하여 유리한 지역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계속 저지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야즈즈 준장은 참모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를 통해 서측 미 2사단과의 접촉단절 상황과 중공군의 후방침투 가능성을 보고받은 야즈즈 준장은 도라 대령의 건의대로 5km 후방 신립리로 철수하여 새로이 저지진지를 점령할 것을 11월 28일 15:00에 예하부대들에게 명령하게 된다.<sup>48)</sup> 막 철수명령을 하달한 15:30경 미 9군단 본부에 연락임무를 위해 파견되었던 인제오울루(Hakki İnceoğlu) 대위가 상황도를 가지고 여단본부에 도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군단의 추가적 명령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53쪽.; Genelkurmay ATASE, op. cit., p.64.

<요도 1>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1950년 11월 28일~30일)<sup>49)</sup>



“터키군 여단은 현재 철수중에 있는 미 2사단의 우익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998고지와 1190고지(백담산)를 연결하는 약 30km 길이의 지역에서 진지를 점령하라.”<sup>50)</sup>

49) Genelkurmay ATASE, op. cit., Ekler, Kroki-7.

50) ibid., p.63.

야즈즈 여단장은 군단의 명령이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중공군에 의해 포위의 위기에 처해있는 당시 터키군 1여단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았기에 신립리로의 철수결정을 기존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인제 오울루 대위에게 여단의 결정을 미 9군단 및 미 2사단에 전달할 것과 미 2사단 우익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sup>51)</sup> 또한 군우리에 위치하고 있던 제1교육중대를 철수부대 엄호를 위해 신립리로 출동시켰다. 제1교육중대의 진지점령이 완료된 후인 17:30경 여단은 야음을 이용하여 포병대대(-)-1대대(-)-2대대-여단본부-3대대 순으로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1대대 1중대와 2포대가 후위임무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신립리로 이동하였다.

신립리로 철수한 터키군 1여단은 11월 28일 23:00까지 저지진지를 편성하여, 1대대는 개천-덕천간 도로 남동쪽 1km 지점 용복참 일대에, 제1교육중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전초임무를 부여받은 2대대 7중대는 신립리 동쪽 및 북동쪽 고지능선상에, 2대대(-)는 도로북쪽 760고지능선 하단부에 위치하였다. 또한 예비인 3대대와 포병대대, 그리고 박격포 중대는 신립리 마을과 마을의 서쪽에 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여단본부와 기타 지원부대들은 신립리 서쪽 3km 지점의 봉명리에 위치하였다. 자정 무렵 시작된 중공군의 공격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부대는 전방에 위치한 1대대와 2대대가 아닌, 후방에 위치한 3대대와 포병대대, 그리고 박격포 중대였다. 신립리 마을과 마을 서쪽에 위치한 후방의 부대들은 피난민 행렬에 섞여서 사전 침투하거나 도로 북쪽으로부터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적에 의한 박격포 사격, 방화 및 수류탄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다수의 장비를 유기한 채 봉명리 방면으로 분산하여 철수하였다.<sup>52)</sup>

전방부대와와의 유무선 단절로 중공군의 기습상황을 1시간 후인 11월 29일 01:00경 포병대대장 쿠르타이(Tahsin Kurtay) 소령으로부터 보고받은

51) *ibid.*, p.63.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54쪽.; Genelkurmay ATASE, *op. cit.*, p.64.

야즈즈 여단장은 여단지휘소가 위치한 봉명리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편성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헌병소대에 의해 집결된 150명의 혼성병력으로 중대를 편성하여 봉명리 동쪽 야산에 저지진지를 급편하였으며, 계속 병력을 수습하여 3대대 병력을 주축으로 저지진지를 강화하였다. 터키군 1여단을 증원하기 위해 전차중대를 동반한 미 38연대 3대대가 10:00경 봉명리에 도착하자 야즈즈 여단장은 미 전차중대 지원 하에 3대대 및 제2교육중대 병력으로 신립리를 탈환하려 시도하였으나 퇴로인 입석골이 중공군에 의해 차단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sup>53)</sup> 중공군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립리의 진지를 고수하며 전투를 수행한 전방의 부대 중, 1대대 1중대와 3중대가 먼저 부대대장 툰체르(Ahmet Tunçer) 대위의 인솔 하에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8시간 만인 11월 29일 08:00에 봉명리에 도착하였으며, 1대대 2중대와 2대대는 탄약이 모두 떨어진 상태에서 백병전으로 끝까지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최종적으로 15:00경 제2교육중대의 엄호하에 봉명리로 철수하게 되었다.

신립리의 위협에서 막 빠져나온 터키군은 봉명리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려 하였으나 중공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부대가 봉명리로 철수한지 30분 만인 15:30부터 도로 북쪽의 미 38연대 3대대 진지와 도로 남쪽의 터키 1대대 진지 모두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포병대대와 미 전차중대의 저지사격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후방 2km 지점의 용복리 계곡까지 차단하며 일점양면(一點兩面) 전술을 통해 여단을 곤경에 빠뜨렸다. 도로 북쪽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미 38연대 3대대는 전면이 포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17:00경 터키군 1여단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군우리 방향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군의 철수로 방어정면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여단 단독으로는 더 이상 현 지역을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야즈즈 여단장은 17:30에 예하부대에 대해 군우리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sup>54)</sup>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55쪽.; Genelkurmay ATASE, op. cit., p.66.

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55쪽.; Genelkurmay ATASE, op. cit., pp.66~67.

봉명리에서 군우리에 이르는 4km의 협로를 따라 이루어진 터키군 1여단의 철수는 이틀간의 치열한 전투에서처럼 전혀 순탄치 않았다. 먼저 출발한 2대대와 포병대대(-)는 중공군에 의해 사전 차단된 용복리 계곡을 큰 피해 없이 빠져나왔으나, 1시간 후에 출발한 3대대는 계곡 양측면으로부터의 강력한 중공군 사격으로 인해 소집단으로 분산되어 군우리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여단의 후위로서 철수 엄호를 담당한 1대대와 미 전차중대는 방치 또는 파괴된 차량으로 인한 철수로 상의 혼잡 상황과 전·후·좌·우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인해 11월 30일 01:00까지 진로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군우리에 위치한 미 2사단 포병대대의 화력지원과 항공기 4대로 구성된 유엔 공군 전폭기 편대의 폭격 및 기관총 사격의 도움으로 05:00에야 군우리 서남쪽의 외곽지대로 집결할 수 있었다.<sup>55)</sup>

군우리에서 미 38연대장 피플로(George B. Peploe) 대령과 조우한 야즈즈 여단장은 미 2사단의 피해상황과 군우리-순천간의 후방통로가 중공군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먼저 봉명리를 출발했던 2대대와 포병대대(-)가 미군차량을 이용하여 안주방향으로 남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야즈즈 여단장은 군우리에 집결한 예하 부대들에게 차후집결지를 평양으로 한다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으며<sup>56)</sup>, 이에 터키군 부대들 중 여단본부는 안주방향으로, 1대대와 3대대의 잔류병력은 미 38연대와 함께 분전을 거듭하며 순천방향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분산되어 평양으로 철수한 터키군 1여단은 12월 1일부터 부대 재편성 및 재정비에 들어가 다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기차 및 트럭을 이용하여 서울 서쪽에 위치한 소사리로 이동한 후 새로이 집결지를 편성하였다.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4~266쪽.; Genelkurmay ATASE, op. cit., pp.68~69.

56) Genelkurmay ATASE, op. cit., p.69.

## 2)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에서의 활약에 대한 재평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터키군 1여단은 11월 26일 16:00에 야즈즈 준장이 콜터 소장으로부터 최초 구두명령을 하달 받은 후 12월 1일 분산된 부대들이 평양에 재집결할 때까지 약 7일간에 걸쳐 군우리 전투를 수행하였다. 터키군 1여단에게 전달된 상급부대로부터의 모든 명령이 서식형태가 아닌 증공군의 공격에 따른 급박한 상황 하에서의 구두명령 또는 무전을 통한 단편명령 형태였기 때문에 명시된 지휘관 의도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미 8군이 처해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터키군 1여단의 전선투입을 통한 기대효과는 증공군 2차 공세 상황 하에서 ‘미 8군의 우익을 방호’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57)</sup>

### (1) 터키군 1여단의 임무 : 노출된 미 8군의 우익 방호

증공군이 유적심입(誘敵深入)의 원칙에 따라 UN군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미 8군은 11월 24일을 기해 서쪽 미 1군단(가산 및 장정동 → 수풍호 및 신의주), 중앙 미 9군단(영변 및 용산동 → 초산 및 벽동), 동쪽 한국군 2군단(사동 및 영원 → 강계 및 만포진)의 병행공격 형태로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하였다.<sup>58)</sup> 하지만 공세 이전부터 미 8군의 정면에는 증공군 13병단 예하 6개군과 북한군 1군단이 공격준비태

57) 당시 터키군 1여단의 작전참모였던 튜룬(Faik Türün) 소령은 11월 26일 미 9군단 지휘소에서 구두명령을 수령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지휘소에 놓여 있던 지도에는 덕천을 향해 그려진 1개 또는 2개 정도의 붉은 화살표와 당시 아군부대들의 진출선 외에는 확인할 것이 없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미 9군단(서측의 미 1군단 포함)의 전개 가능성을 위한 우익방호 임무가 주어졌 것이었다. 하지만 첫 구두명령과 24시간 후에 무전을 통한 두 번째 명령에서도 일반상황 및 아군상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군단사령부 또한 당시 많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은 UN군이 전략적 기습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Ali Denizli, Kore Savaşı, Uzaklardaki Kahramanlar ve Zaferleri (한국전쟁, 먼 땅의 영웅과 승리)* (Istanbul: Başlık, 2010), pp.80~81에서 인용된 인터뷰 내용 참고.

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93쪽.

세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중공군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는 미 8군의 우익, 즉 한국군 2군단 예하 7사단과 8사단이 진출하고 있던 덕천 및 영원지역에 38군과 42군, 그리고 40군의 일부를 집중하여 전선을 돌파한 후 군우리 및 삼소리 방향으로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하는 것과 이러한 퇴로차단과 병행하여 주력부대를 통해 청천강 서안의 UN군(특히, 미 9군단)을 섬멸하는 것이었다.<sup>59)</sup>

중공군의 이러한 의도는 중공군 2차 공세의 초기단계 작전간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구현되었다. 실제 26일 오후 터키군 1여단이 군우리로부터 덕천을 향해 출발했을 당시, 한국군 7사단의 부대들은 덕천으로의 퇴로가 차단되어 와해된 상태로 순천으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한국군 8사단은 침투한 적에 의해 영원-맹산-가창 방향으로의 철수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였다.<sup>60)</sup> 미 9군단 예하 부대들의 경우 우측 한국군 2군단 전선이 25일 저녁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측 미 2사단은 전 전선에 걸친 동시다발적 중공군의 공격에 직면하여 26일 05:00를 기해 구장동(군우리로부터 약 22km 북동쪽에 위치)에서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었으며<sup>61)</sup>, 서측 미 25사단은 25일 자정을 기해 시작된 강력한 중공군의 공격으로 사단 중앙의 돌빈 특수임무부대(TF Dolvin)와 우측 24연대가 피해를 입자 구룡강을 따라 진행하던 운산(군우리로부터 약 35km 북서쪽에 위치)으로의 진출을 전면 취소하고 부대를 규합하여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었다.<sup>62)</sup>

이렇듯 미 8군의 우익이었던 한국군 2군단의 남쪽으로의 철수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전방 사단들은 남쪽으로의 전선조정 대신 돌출된 북쪽 지역에서 중공군의 위협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덕천에서부터 군우리

5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항미원조전사)』, 1991, 50~51쪽.; Mossman, Billy C., *U.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72.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25~426, 437~439쪽.

61) 위의 책, 445쪽.

62) Mossman, Billy C., op. cit., p.68.

이르는 통로와 맹산에서부터 북창리, 순천에 이르는 통로가 중공군에게 개방되어 미 8군의 후방이 노출되는 위협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 미 8군의 예비였던 미 1기병사단의 순천으로의 투입과 미 9군단의 예비였던 터키군 1여단의 덕천방향으로의 투입이 이루어졌으며<sup>63)</sup>, 특히 덕천 탈환에 이어 군우리를 목표로 공격하려는 중공군 38군 및 40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터키군 1여단의 임무는 전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작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 (2) 와원리로의 철수 : 야즈즈 준장의 상황판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

야즈즈 준장이 콜터 소장으로부터 11월 26일 최초로 받은 구두명령은 ‘덕천 탈환’이었으나, 다음날인 27일 14:30경 터키군 1여단이 여일령 고개를 넘고 있을 때 무전을 통해 전달받은 군단으로부터의 새로운 명령은 ‘덕천으로의 이동을 중지하고, 군우리~덕천간의 접근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명령 변경은 1개 여단 규모의 중공군이 덕천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계속된 보고를 접한 후 콜터 소장이 미 8군사령관인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졌다.<sup>64)</sup> 『U.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 - July 1951』에는 콜터 소장이 야즈즈 준장에게 와원의 7마일 동쪽에 부대를 배치하여 접근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야즈즈 준장이 잘못 이해하여 와원 바로 동쪽(군우리에서 10마일 동쪽)에 부대를 배치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야즈즈 여단장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터키군 1여단 위치가 중공군의 포위에 대한 최소한의 방호를 제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65)</sup> 만약 이러한 기술내용이 사실이라면 터키군 1여단의 성과는 전장의 마찰상황 속에서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 ‘우연’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63) *ibid.*, pp.70~71.

64) *ibid.*, p.77.

65) *ibid.*, p.77.

것이다. 하지만 많은 터키 사료는 야즈즈 준장이 부대를 군단의 명령과 다른 곳에 배치할 한 결정이 단순한 언어소통상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군단으로부터의 변경된 명령을 접수한 야즈즈 여단장은 즉시 상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급부대에서 요구하는 와원 7마일 동쪽의 용덕리에서의 방어편성 및 접근로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접근로 차단을 위한 첫 번째 장소로 후방에 위치한 와원리를 택하였다.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1) 용덕리는 터키군 1여단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의 행군속도로는 일몰 전에 용덕리에서의 방어편성이 불가능한 점, 2) 현 위치의 고수 또는 전방으로 진출시 장상리에 출현한 중공군에 의해 여단의 측방 및 후방이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점, 3) 현 위치는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수풀이 우거져 일반 보병병력을 제외하고는 포병 및 차량화된 보병 중화기조차 전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sup>66)</sup> 야즈즈 여단장이 와원리로의 철수 결정시 “나는 (터키의) 동부지역에서 작전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오늘밤을 노출된 이곳에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한 사실<sup>67)</sup>과 부여단장인 도라 대령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당시의 철수결정이 적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는 사실<sup>68)</sup>은 부대의 행군방향을 돌려 와원리로 철수한 후 중공군의 진출을 차단하려고 했던 야즈즈 여단장의 결정은 신중한 판단에 따른 의도된 행위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3) 와원리 전투 : 불비한 여건 하 진행된 11시간 동안의 고군분투

야즈즈 여단장의 지시에 따른 터키군 1여단의 여일령으로부터 와원리로의 이동은 그 과정의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병력을 수송할 이동

66) Genelkurmay ATASE, op. cit., pp.60~61.

67) Ali Denizli, op. cit, p.83.

68) Celal Dora, *Kore Savaşı'nda Türkler(한국전쟁에서의 터키인)*(İstanbul: İsmail Akgün Matbaası, 1963), p.102.

수단의 제한으로 철수속도는 더디기만 하였고, 절벽과 같은 산악지형에 형성된 협소한 도로로 인해 수송트럭과 포병장비의 방향을 바꾸는 데만 해도 30~40회 가량 전·후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sup>69)</sup> 또한 교행이 전혀 불가능하였기에 선두에 있던 정찰소대가 철수 시에는 후위 임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터키군 1여단을 더욱 곤경에 빠뜨린 것은 상급부대와 유일한 통신수단인 무전차량의 상실이었다. 당시 터키군 1여단의 미 9군단과의 유일한 통신수단은 로렌조 대위의 차량에 설치된 무전기가 전부였다. 하지만 철수 중 와원리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무전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후위인 정찰소대 병력들이 이를 구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8일 02:00에 시작된 박격포와 기관총을 이용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무전차량은 중공군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때문에 터키군 1여단은 상급부대의 지시 및 인접부대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독자적으로 와원리에서의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다.<sup>70)</sup>

터키군 1여단은 28일 동틀 무렵 성불골 남쪽 10중대 지역에서 시작된 경계분견대와 중공군의 교전을 시작으로 하여 후방 신립리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편성할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와원리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중공군 전투력의 상대적 우위 때문에 결국 진지를 고수하지는 못했지만, 와원리에서의 전투는 중공군 38군의 군우리 방면으로의 신속한 진출을 둔화시키고, 미 2사단을 비롯한 전방부대들의 철수시간을 벌여주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워커 장군은 전방상황의 악화로 28일 이른 아침, 예하부대들에게 철수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9군단 예하부대들은 중공군 40군의 압박 하에 복원~와원선으로 철수를 하게 된다.<sup>71)</sup>

69) *ibid.*, p.106.

70) 터키군 1여단의 상급부대 및 인접부대와의 통신이 재개통된 시점은 신립리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인 29일 08:00부이며, 이때 처음으로 여단이 28일 24:00부로 미 2사단에 배속된 사실도 알게 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5, 260쪽 참고.

미 8군의 가장 우측, 와원리에서 전투를 수행하면서 11시간 동안의 철수시간을 획득한 터키군 1여단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터키군 1여단의 와원리에서의 방어배치는 적절하였다. 터키군 1여단은 주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좌우 고지의 능선 상에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중공군의 침투 및 우회공격에 대비하여 동쪽 446고지(11중대)와 남동쪽 799고지(공병소대)에도 병력을 배치하였다. 둘째, 우회공격을 시도하는 중공군에 대해 전투력의 열세 속에서도 과감히 실시한 대응공격이 적절하였다. 특히, 대응공격을 통한 중공군의 우회기도 저지에 있어서는 부여단장 도라 대령의 현장지휘가 효과를 발휘하였다. 전방 대대의 현장지휘를 맡은 도라 대령은 중공군 1개 연대규모가 서측 2대대 지역으로 우회하려는 상황을 10중대장인 차탈프 나르(Hüseyin Çatalpınar) 대위로부터 미리 파악하여 9중대 1개 소대와 2대대 병력을 규합하여 우회로를 통제할 수 있는 547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는 중공군의 우회를 일시적이거나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up>72)</sup> 셋째, 중공군을 압도한 터키 병사들의 감투정신이 효과를 발휘하였다. 중공군과 마주한 터키군 병사들은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총검술과 수류탄 공격으로 적에게 계속적으로 저항하였다.<sup>73)</sup>

#### (4) 신립리 전투 : 혼란 속에서 빛난 1대대 2중대의 임무수행

『U.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 - July 1951』에서는 터키군 1여단의 신립리로의 철수가 단순히 통신두절 상황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와원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고자 한 상급부대의 지시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4)</sup> 하지만 위 책의 설명은 당시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71) Mossman, Billy C., op. cit., pp.79~80 참고.

72) Celal Dora, op. cit., pp.113~119.

73) ibid., p.121.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군 1여단의 신립리로의 철수는 와원리 전방에서 부대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도라 대령이 28일 14:30에 야즈즈 여단장에게 건의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결단의 가장 큰 배경은 대규모 중공군의 서측 2대대 진지 방향으로의 배후침투 가능성이 었다. 또한, 15:30에 야즈즈 여단장이 미 9군단에 파견되었다 복귀한 인제오울루 대위로부터 군단장의 구두명령(현 지역 고수)을 접수하였지만 군단이 당시 터키군 1여단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판단 하에 철수결정을 한 사실<sup>75)</sup>은 명령불복의 책임을 감수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했던 여단장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신립리로 철수한 터키군 1여단은 28일 23:00까지 저지진지를 편성하였으나 신립리에서의 전투는 여단장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야간이동으로 인해 신립리에서의 진지편성은 전·후방 모든 곳에서 지지부진하였으며, 예비로 신립리 마을 서측에 진지를 편성한 3대대와 포병대대 및 박격포 중대는 계속된 전투로 인한 피로로 방어준비태세를 완벽히 갖추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sup>76)</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정을 기해 시작된 중공군의 공격은 ‘적주아요(敵駐我擾)’를 적용한 완벽한 기습이었다. 중공군의 기습에 의해 신립리 마을에 위치해 있던 3대대와 포병대대 및 박격포 중대의 병력들은 와해된 상태로 많은 장비를 유기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sup>77)</sup> 전방의 1대대와 2대대보다 후방의 부대들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쪽에서 우회하여 침투한 중공군 병력과 사전 피난민 행렬에 끼어 후방으로 침투한 게릴라 병력들이 합세하여 터키군 1여단의 취약한 지점을 수류탄과 박격포, 기관총 등의 무기들로 동시에 집중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이었다. 신립리 마을에 대한

74) Mossman, Billy C., op. cit., p.81.

75) 철수결정을 한 야즈즈 여단장은 인제오울루 대위에게 여단의 결정을 미 9군단과 미 2사단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Genelkurmay ATASE, op. cit., p.63 참고.

76) Celal Dora, op. cit., pp.133~134.

77) Genelkurmay ATASE, op. cit., p.64.

중공군 기습 당시 후방 2대대 지휘소 지역에 위치해 있던 2대대의 한국어 통역관 백상기<sup>78)</sup>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자정이 되었다. 암구어에 막 답하려할 때 사방이 화염에 휩싸였다. 기관총탄이 마치 소나기처럼 머리 위쪽의 양방향에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패닉상태에 빠진 나를 구한 것은 알리(Ali, 2대대장 전령)였다. 알리는 나를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우리 둘은 땅으로 나뒹굴어졌다. 알리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대대 취사장의 상황은 전방 진지의 치열한 상황과 다름이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알리는 갑자기 내 손을 뒤쪽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뒤쪽 눈두렁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몸을 날렸다. 짧은 찰나에 한 명의 장교와 두 명의 병사 그리고 손에 국자를 쥔 대대의 조리장이었던 군무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sup>79)</sup>

신립리에서 터키군 1여단의 전체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지만 전방의 부대들, 특히 1대대 2중대의 임무수행은 높이 평가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전방 1대대와 2대대는 여단으로부터의 예비대 증원이 불가한 상황 속에서 우세한 중공군에 맞서 29일 아침까지 격전을 치르며 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신립리 계곡 바로 남쪽에서 임무를 수행한 1대대 2중대는 인접 1중대와 3중대가 06:00경 먼저 철수하여 홀로 고립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원들 모두가 일치단결한 가운데 계속 저항하여 14:00에 최종적으로 철수할 때까지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2중대는 중대장 아큰즈(Ramazan Akıncı) 대위가 적의 박격포탄에 맞아 머리에 중상을 입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와해되지 않은 가운데, 선임 소대장인 썬메즈(Hilmi Sönmez) 중위가 지휘권을 이어받아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탄약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는 착검공격 및 육탄돌격도

78) 6·25전쟁 발발 전 대구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하여 UN군의 한국어 통역관으로 터키군 1여단 2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주한 터키대사관 고문.

79) Kara Harp Okulu, *Kore'de Türk Askeriyle Altı Yıl(한국에서 보낸 터키군과의 6년)* (Ankara: KHO Yayın Merkezi, 1991), p.2.

불사하였다.<sup>80)</sup> 비록 신립리 전방 작은 고지에서의 임무수행이었지만, 미 8군 전체가 전면적 철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반나절의 시간을 확보해 준 2중대의 용맹한 행위는 혼란에 빠진 터키군 1여단 후방부대의 수습을 가능케 하였고, 계속되는 철수 과정에서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기(morale)’를 일부이나마 고취시켰다고 볼 수 있다.

#### (5) 봉명리로부터 평양까지 : 분산 그리고 계속된 철수

터키군 1여단이 신립리에서 벗어나 봉명리로 이동 중이던 29일 낮, 미 8군은 중공군에 의한 동쪽으로부터의 포위위기가 더욱더 증가함에 따라 28일 아침에 이은 두 번째 철수를 수행하고 있었다.<sup>81)</sup> 미 2사단의 경우 북원의 상실, 중공군에 의한 필호산 점령, 터키군 1여단의 봉명리로의 철수 등의 상황 악화로 군우리와 개천(봉명리) 외곽을 연하여 새로운 저지선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 23연대(북원 2마일 남쪽 ~ 필호산 서측 하단), 한국군 3연대(필호산 서측 하단 ~ 필호산 동측 하단), 미 38연대(필호산 동측 하단 ~ 개천 동쪽), 터키군 1여단(개천 동쪽 및 남동쪽)을 배치하였다. 『U.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 - July 1951』에 따르면 미 2사단이 터키군 1여단으로부터 기대했던 것은 일부 병력으로 개천 동쪽 고지군을 점령하고, 부대의 나머지는 개천으로의 우회로가 있는 개천강 남쪽을 배비하는 것이었으나 계속된 미 고문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야즈즈 여단장이 강 남쪽에 부대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sup>82)</sup> 또한 중공군 38군이 29일 오후에 덕천-군우리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공격함에 따라 미 2사단의 우익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미 38연대의 무선중계를 통해 야즈즈 여단장에게 공세행동으로 진지를 회복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3)</sup>

80) Genelkurmay ATASE, op. cit., p.65.; Celal Dora, op. cit., p.136.

81) Mossman, Billy C., op. cit., p.105.

82) ibid., p.108.

83) ibid., p.109.

터키군의 공식 자료와 지휘관의 수기에서는 29일 낮에 미 2사단의 작전의를 전달받았다는 것과 무선중계를 통한 공세행동 명령을 수령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단지, 당시의 상황을 미군의 기억과는 달리, 전차중대로 증강된 미 38연대 3대대가 개천으로 터키군 1여단을 도와주기 위해 10:00에 도착하였고, 도로 북쪽(터키 1대대가 도로 남쪽)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17:00경 철수를 함에 따라 여단의 북측이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남쪽과 북쪽으로부터의 양면포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단이 후방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4)</sup>

봉명리에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미 2사단 또는 터키군 1여단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상급부대인 미 2사단과 하급부대인 터키군 1여단 모두 과오를 범했다. 미 2사단은 앞의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작전의도가 예하부대에 정확히 전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와원리 및 신립리 전투를 치열히 수행하면서 단지 대대(-) 규모 정도의 터키군 병력만이 가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터키군 1여단은 여건이 불비했더라도 남쪽 우회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했으며, 미 38연대 3대대에 대해서는 지휘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철저히 통제했어야 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과오가 없었더라도 터키군 1여단을 포함한 미 2사단, 더 나아가 미 9군단의 계속된 철수는 예정되어 있던 행보였다는 것이다.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의 중공군 40군의 공격과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의 중공군 38군의 공격은 일체의 정지 없이 계속되었고, 후방 퇴로상의 삼소리는 28일 08:00에 중공군 113사단(-)에 의해, 용원리는 29일 04:00에 113사단 337연대에 의해 벌써 점령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sup>85)</sup> 봉명리 이후부터의 터키군 1여단의 철수는 제대가 유지

84) Genelkurmay ATASE, op. cit., pp.66~67.

85) 홍학자·홍인표 역, 『중국이 본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주), 2008, 160~161쪽.

되지 않은 채 수행되었으며, 여단장에 의한 통합적 지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부대들은 분산되어, 일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안주방향으로, 또 일부는 미 2사단 통제 하에 갈현에서 청룡참에 이르는 10km의 중공군이 설치해 놓은 ‘뗏’을 뚫고 고된 과정을 거치며 순천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철수과정에 대한 기록 중 한 가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부여단장 도라 대령의 행적에 대한 설명이다. 한·미 자료에는 도라 대령이 봉명리로의 철수과정에서 전선에서 이탈했으며, 부대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엉뚱한 행동을 했다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묘사<sup>86)</sup>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평가이다. 앞서 와원리 전투에 대한 재평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라 대령은 위기의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행동하는 그런 지휘관이었다. 도라 대령이 후방으로 이동한 이유는 신립리 전투간 와해된 3대대 및 포병대대의 무질서한 철수 상황과 후방에 위치한 여단 전투근무지원부대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으며<sup>87)</sup>, 터키군 1여단이 군우리 전투를 수행하기 전 야즈즈 여단장의 판단으로 중간 제대인 연대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도라 대령은 부대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었다.<sup>88)</sup> 또한 부대기를 지키려고 한 도라 대령의 행동을 ‘엉뚱하다’라고 묘사하는

86) 『U.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의 111쪽에는 ‘key leaders missing’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으며, 『한국전쟁전투사: 청천강 전투』의 258~259쪽에는 ‘이러한 와중에 도라 대령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 철수하자는 자신의 건의가 묵살되자, 부대의 군기만은 수호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군기에 대하여 거수경례를 마친 후 군기를 떼어 자신의 허리에 감고 군우리로 향하였다...(중략)...이렇게 해서 도라 대령은 전화에 싸인 부대를 일선에 남겨 놓고 자신만이 일부병력과 함께 후방으로 떠나 버린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의 79쪽에는 ‘앞서 오봉리-군우리 철수전에서 연대장 도라 대령이 일부 병력을 이끌고 남하’라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87) Celal Dora, op. cit., pp.139~141.

88) 야즈즈 여단장의 241연대의 해체 결정은 상·하급제대간의 신속한 상황보고 및 명령하달상의 지연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도라 대령은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여 양카라에 있는 터키 총사령부에 1950년 11월 4일자 항의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군우리 전투 이후인 1950년 12월 4일 지휘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대계편의 단행으로 241연대가 다시 편성되었으며, 연대장인 도라 대령이 작전을 여단장인 야즈즈 준장이 군수 및 보급지원을 담당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ibid.*, pp.72~79, p.155, pp.159~161. 참고.

것은 터키인들이 부대에 부여한 숭고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터키인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하사받은 부대를 부대의 명예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때문에 도라 대령의 행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터키군 1여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행위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sup>89)</sup>

#### (6)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 수행에 대한 메시지 및 언론보도

터키군 1여단의 첫 전투임무였던 군우리 전투는 많은 상처를 남겼고, 혼란 속에서 발생한 마찰을 때로는 극복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지만, 터키군의 용맹함을 드높이고 많은 성과를 창출한 전투였다. 지금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지 않지만, 다음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막 전투를 마친 터키군 1여단에게 보내진 국내외적 메시지들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격려 메시지뿐만 아니라 군우리 전투를 막 끝낸 후 터키군 장병들 앞에서 진행된 훈장 수여행사에서의 워커 장군 훈시에서도 터키군 1여단의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터키군 1여단이 김포에서 재편성과 함께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1950년 12월 13일, 워커 장군은 소사리 터키군 여단 지휘소를 방문하여 군우리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16명의 터키군 장병들에게 은성무공훈장(Silver Star Medal)과 동성무공훈장(Bronze Star Medal)을 수여<sup>90)</sup>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였다.

89) 부대를 터키어로는 ‘Sancak’이라고 하며 터키군 연대 및 여단급 부대에 대통령에 의해 주어진다. : 많은 터키인들은 도라 대령의 행동을 명예롭다고 평가한다. 그 것의 명확한 증거로, 터키 앙카라에 위치한 터키 육군사관학교(Kara Harp Okulu)에서 매주 금요일 사관생도들이 분열의식을 하는 장소에 도라 대령의 6·25전쟁에서의 업적을 기려 ‘Albay Ceral Dora Tören Alan i (제랄 도라 대령 연병장)’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90) 워커 장군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인원 중 장교는 여단장 야즈즈(Tahsin Yazıcı) 준장, 참모장 토키(Selahattin Tokay) 중령, 작전참모 튜룬(Faik Türün) 소령, 2대대장 울루윤류(Miktat Uluönlü) 소령, 포병대대 부대대장 사야(Ahsen Saya) 소령, 여단 지원중대장 규류류(Sacit Gürünlü) 대위이다. Genelkurmay ATASE, op. cit., p.81.

“터키군 1여단은 15일 전 군우리 지역에서 미 8군의 철수를 용맹하게 보장하였다. 터키군 1여단이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었기에 처음에는 경협을 쌓게 할 목적으로 게릴라 소탕임무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터키군에게 이러한 것은 필요 없었다. 터키군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미 8군사령관으로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은 터키군 1여단 덕분이다.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는 우세한 중공군을 맞이하여 후방으로 철수한 상태이다. 어쩌면 더 후방으로 철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8군은 절대 섬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sup>91)</sup>

〈표 1〉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격려 메시지<sup>92)</sup>

이름	직책	내용 요약
멘데레스 (Adnan Menderes)	터키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군 1여단의 희생과 용맹함 치하</li> <li>• 임무 성공에 대한 기쁨</li> </ul>
야뭇 (Nuri Yamut)	터키 총사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 상황 하에서 국민적 기대에 대한 부응</li> <li>• 터키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li> </ul>
워커 (Walton Walker)	미 8군사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2사단과 함께 수행한 4일간의 전투를 통해 미 8군의 포위 및 분산 방지에 기여</li> <li>• 11월 28일 와원 일대에서 총검공격을 통해 중공군 200명 사살</li> <li>• 미 2사단과 미 8군이 포위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확보</li> </ul>
콜린스 (J. Lawton Collins)	미 육군참모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함</li> <li>• 영웅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함</li> </ul>
신웰 (Emanuel Shinwell)	영 국방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연합군의 상황과 비교 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달성함</li> <li>• 수천명의 UN군이 중공군의 포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터키의 용맹함 덕분임</li> </ul>
페퍼 (Claude Pepper)	미 상원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는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한 시기에 도움을 줌</li> <li>• 터키군이 믿음직한 동맹국이며 용맹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음</li> </ul>
로스 (Ross)	미 상원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우리 전투는 미-터 양국관계의 굳건한 끈을 형성함</li> <li>• 터키군이 수행한 업적은 한 단어로 ‘무용’이라 칭할 수 있음</li> </ul>

91) Genelkurmay ATASE, op. cit., pp.81~82.

92) ibid., pp.72~74의 메시지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에서의 업적은 단순히 군 관련 인사 및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래 <표 2>에 정리된 것처럼 당시 각국의 신문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군우리 전투를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무르게 하기보다는 오늘날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한다.

<표 2>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에 대한 각 국의 신문보도<sup>93)</sup>

신문	내용 요약
미국 Washington P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공군이 돌파구를 확장하던 순간, 터키 여단이 UN군 전선의 붕괴된 지역에서 놀라운 행동을 통해 견뎌냈다.</li> <li>• 터키군이 전투에서 보여준 무용은 말로 설명하기조차 어렵다.</li> </ul>
프랑스 Figa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에서 터키군은 터키의 유구한 역사에 어울리는 용맹함을 보여주었고, 세계가 놀랐다.</li> </ul>
스페인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세한 중공군을 상대로 한 터키군의 총검공격은 많은 병력과 장비를 구하였다.</li> </ul>
핀란드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군이 용감히 싸웠으며, 미군의 철수를 보장했다는 것이 알려졌다.</li> </ul>
이스라엘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군의 빛나는 전투는 중공군의 진출을 지연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다.</li> <li>• 5,000명 터키군의 무용으로 중공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li> </ul>
스위스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의 민주주의로의 행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 정치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터키군의 6·25전쟁 참여와 군우리 전투에서의 용맹함을 설명함.</li> </ul>
서독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키군은 짧은 시간 내에 역사에 길이 남을 영예로운 업적을 달성하였다.</li> <li>• 터키군의 의욕에 넘친 총검공격은 많은 성과를 냈고, 중공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li> </ul>
영국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맹한 터키군은 이틀에 걸친 철수기간 동안 식량 및 탄약 보급없이 부대의 모든 사력을 다해 싸웠다.</li> </ul>

93) ibid., pp.77~79의 메시지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4. 맺음말

지금까지 터키의 6·25전쟁 참전 동기를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참전 후 첫 전투임무인 군우리 전투에서 터키군 1여단의 활약을 한·미 자료와 터키 자료의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평가해 보았다.

터키의 참전 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UN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수행’이나 ‘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한 도움’이 아니었다. 터키는 이상적, 박애주의적 이유보다는 현실적 안보이익을 고려하여 참전을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터키는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에 가입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6·25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이다. NATO 가입은 냉전의 문턱에서 터키의 국가이익을 위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되었으며, 터키가 NATO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방회원국, 특히 미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보동반자’라는 이미지를 강력히 심어주어야 했다. 공산세력에 맞서 미국주도로 수행되고 있던 6·25전쟁은 그러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으며, 이러한 고려에 의해 터키는 8,000km나 떨어진, 역사적, 경제적 관계가 전무한 한국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단급 전투병력을 파견하여 전투를 수행하려 했던 것이다.<sup>94)</sup>

6·25전쟁에 참전하여 4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수행한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는 불비한 조건 하에서도 국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터키군 1여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전선으로의 처녀투입임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2차 공세 상황에서 노출된 ‘미 8군의 우익을 방호’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적 열세, 상급부대 및 인접부대와의 통신

94) 터키는 6·25전쟁 참전 기간 중인 1951년 9월, NATO로부터 회원자격을 위한 정식초청을 받았으며, 5개월 후인 1952년 2월, 그리스와 함께 정회원국이 되었다. Kibaroglu, Mustafa and Kibaroglu, Aysegül, op. cit., p.48.

단절, 침투한 중공군에 의한 게릴라식 공격 등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터키군 1여단은 와원리, 신립리, 봉명리 지역에서의 전투를 통해 미 8군의 철수를 위해 긴요한 수일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특히 와원리로 철수하여 중공군에 맞서기로 한 야즈즈 준장의 결심, 도라 대령의 와원리에서의 솔선수범과 전방 부대들의 과감한 대응공격, 그리고 신립리에서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며 활약한 1대대 2중대의 임무수행 등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케 하였다. 터키군 1여단의 군우리 전투에서의 활약이 전투수행 직후 많은 국가의 주요인사와 언론의 주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개된 많은 기록에서 ‘군우리 태형’의 아픈 기억 때문에 과소평가되거나 아니면 우연의 결과인 것처럼 치부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실제 전투를 수행한 터키군의 기록과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편향된 평가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자 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아직도 북한 군우리 지역의 어딘가에 묻혀있을 터키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6·25전쟁기 터키군 참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참전 동기를 분석하고 첫 전투에서의 활약을 재평가하는데 그쳤지만, 60여 년 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터키의 6·25전쟁 당시의 행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터키에서의 연구가 활발한 터키군의 6·25전쟁 중 민사작전<sup>95)</sup>, 북한 포로수용소 내에서의 위계질서 유지<sup>96)</sup>에 대한 연구는 6·25전쟁을 단순히 군사적 관점으로

95) 터키군은 6·25전쟁 기간 중 민사작전의 일환으로 ‘양카라 학원’이라는 고아원 겸 학교를 수원에 건립하였으며 많은 전쟁고아와 어린이를 보살피고 가르쳤다. ‘양카라 학원’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 출천 MBC에서 <코레 아일라>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하였다. 더 세부적인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Ali Denizli, *op. cit.*, 제15장 참고.

96) UN군 포로와 관련된 대표적 국내 연구는 조성훈, 「미귀환 국군포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329~376쪽이 있으나 북한 포로수용소 내에서의 활동, 특히 터키군의 위계질서 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제와 관련된 터키측 연구를 위해서는 Ali Denizli, *op. cit.*, 제13장 참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난 최근의 국내 연구동향에 부응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6·25전쟁을 보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4.1,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6·25전쟁, 터키, 터키군, 참전 동기, 군우리 전투, 크리스마스 공세, 중공군 2차 공세, 와원리, 신립리, 봉명리

<ABSTRACT>

A Study on the Turkis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Motivation behind the Turkish  
Participation and the Battle of Kunuri

Kim, Jin-woo

Even though Turkey sent a brigade to the Korean War and suffered the third highest number of casualty during the war, the Turkis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has not received its due recognition so far.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Turkish participation with a focus on the motivation behind the Turkish participation and the first battle that the Turkish troop faced- the Battle of Kunuri.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Turkis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introduces why this topic was chosen, what methodology has been employed for this study, and why this study is significant.

The first part of the main article rejects the previous notion that Turkey sent over its troops on ideological and humanitarian grounds. A careful study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 of Turkey at the outset of the Korean War shows that Turkish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stemmed from the desire to facilitate its bid for a NATO membership.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reevaluates the Turkish role at the Battle of Kunuri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from Korean, American, and Turkish sources. It argues that their role has been traditionally misconstrued or underemphasized and that we need to rectify this situation by highlighting their contribution to this battle.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summarizes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nd then suggests further study on this subject in the future.

Key Words : the Korean War, Turkey, the Turkish Brigade, the Motivation behind the Turkish Participation, the Battle of Kunu-ri, the Home-by Christmas Offensive, the Second Phase of Chinese Offensive, Wawon, Sinnim-ni, Pongmyong-ni